당뇨병환자, '당화혈색소' 잘 몰라

세계 당뇨병의 날과 당뇨병 주간(13~19일)을 맞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당뇨병환자의 혈당 관리 실태 및 혈당측정의 지표인 당화혈색소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서울, 경기지역 7개 대학병원에 정기검진을 위해 내원한 총 249명의 당뇨병환자가 참여했다.

조사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당화혈색소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라며 "당화혈색소(A1c)란 혈당이 증가돼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헤모글로빈)에 포도당이 붙은 상태를 말하며, 한번 결합된 당분은 적혈구의 수명인 120여 동안 붙어있기 때문에 당뇨병환자의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총 249명의 당뇨병환자 가운데, 당화혈색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환자는 18%(45명)에 그쳤다. 또한 당화혈색소의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8.4%(21명)였다. 10명 중 8명은 당화혈색소 자체에 대해 아예 몰랐으며, 알고 있더라도 정확한 관리 수치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당화혈색소를 인지하고 있는 18%(45명)의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상태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부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자의 91%가 당화혈색소를 측정 받은 바 있다고 답변했으나,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권장 관리 수치가 6.5 미만임을 알고 있는 경우는 48%였다. 당뇨병환자의 혈당관리 실태를 파악한 항목에서는 치료 의존도는 경구용 약물치료가 75.1%, 인슐린 29.7%, 식사·운동요법이 23.3%등 있었다.

대체로 약물에 대한 혈당 관리가 대부분이었으며, 생활 속에서 식사·운동요법까지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환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불규칙적으로 식사·운동요법을 실천하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43.7%로 이들 중 78%는 정기 검진 수일 전부터 관리를 한다고 응답해 일반적인 혈당측정 결과만으로 환자를 판단할 경우, 실제 혈당관리와 차이가 많이 있을 소지가 있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할 경우에는 단시간의 노력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가짜 모범 혈당관리 환자를 짚어낼 수 있는 것이 당화혈색소 수치이며 지난 2~3개월 동안의 혈당관리 평균 기록이 낱낱이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이 당뇨병으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역시 합병증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2.2%가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다고 답했으며, 17.1%는 장기간 약물 복용, 14.7%는 생활습관 개선, 9.4%가 검진 및 치료 비용의 부담이라고 답했다. 이를 당화혈색소 인지 여부로 나눠서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는 오히려 당화혈색소를 인지하는 환자군(77.8%)가 비인지 환자군(71%)보다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높았으며, 장기간 약물복용에 대한 부분은 더 철저히 조절해야 하는 비인지군(19.5%)이 인지군(6.7%)보다 높았다.

대한당뇨병학회 손호영 이사장(강남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은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당뇨병환자의 합병증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실제 당뇨병환자들 조차도 인지도가 낮아, 당화혈색소를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당화혈색소 관련 교육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3개 대학병원(가톨릭대 내분비내과·예방의학과, 연세의대 내분비내과, 성균관의대 내분비내과)에서 1차 의료기관의 당뇨병 치료 실태 및 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행한 연구 결과(2006년 당뇨병학회 가톨릭대학교 김성래 교수발표)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7.0% 미만으로 혈당조절 정도가 양호한 환자의 비율의 전체 38.3%에 불과했다. 또한 교육 전 후 효과를 3개월 기간을 두고 조사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7.0% 이상이었던 관리 대상 환자군(평균 8.3%)에서 교육 후 3개월 경과 후 7.8%로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전국 626개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당뇨병환자 3만900명을 대상으로 2005년 3월~ 2006년 2월까지 실시됐다.

연구팀은 "대한당뇨학회에서 권장하는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목표치는 6.5%이하이다"며 "당화혈색소가 최근 2~3개월의 평균적인 혈당을 반영한다고 볼 때 1년에 4~6회 정도의 당화혈색소 측정을 통해 혈당조절 정도를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가혈당측정기를 통한 혈당측정 수치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자가혈당측정은 단기간의 생활의 변화만으로도 혈당 수치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가 방심하기 쉽다는 것이 맹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특정 시간대(아침 공복 시간 등)만 측정할 경우 전체적인 실제 혈당조절 정도와 달리 특정시간 대의 혈당으로 자신의 혈당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오인 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평소에 꾸준히 자가혈당측정을 통해 자신의 혈당조절 정도를 판단하다 연 4~6회 정도 당화혈색소 검진으로 평균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혈당조절 정도와 혈당 변화 패턴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고 전했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성래 교수(성가병원 내분비내과)는 "평소에는 관리지침에 따라 자가혈당측정기로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비교적 혈당조절이 순조롭더라도 1년에 4~6회 당화혈색소 검사를 병행해 관리하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최선이다"고 말했다.

글 홍지영 기자

이수유비케어-이통3사,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국내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기업 이수유비케어(대표 김진태)는 SK텔레콤에 이어 KTF, LG텔레콤 등과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이통 3사를 통해 자사의 모바일 헬스케어- 'MDoctor(엠닥터)'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이수유비케어는 국내 이통 3사 사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약 200여종의 단말기를 통해 '엠닥터-당뇨'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이용 가능한 휴대폰 기종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엠닥터는 휴대폰에 작은 외장형 측정기기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혈당, 보행계수 등의

건강 지표들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휴대폰과 웹사이트 건강샘(www.healthkorea.net)에 저장, 누적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이다. 뿐만 아니라 유무선으로 가까운 지역주치의와 연계되어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특히 '엠닥터-당뇨'의 경우 당뇨 수첩이 수기식이 아닌 전자식으로 자동 저장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혈당 및 운동관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수유비케어는 지난해 SK텔레콤과 제휴를 시작으로 엠닥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상용화를 앞두고 이용자 확대차원에서 KTF, LG텔레콤과 추가적인 제휴를 체결하였다. KTF는 11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연내에 LG텔레콤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 영동세브란스 병원과 1차 시범서비스를 통해 '엠닥터-당뇨' 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한 이수유비케어는 하반기부터 가까운 지역주치의와 환자들을 직접 연계하는 '엠닥터-당뇨' 서비스의 사용성 검증을 위해 2차 시범서비스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이용자 확대를 위해 이수유비케어는 '엠닥터-당뇨' 관련 약 250여명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무료체험단〉을 모집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이수유비케어 김진태 대표는 "모바일헬스케어 서비스는 이수유비케어가 계획하고 있는 U헬스케어 분야의 하나로 '엠닥터-당뇨'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엠닥터-웰빙'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모바일헬스케어 뿐 아니라 홈 헬스케어 등 다양한 U헬스케어 사업분야에 진출, 고부가가치사업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홍지영 기자

(문의:www.healthkorea.net / 2105-5006)

당뇨병환자 절반 5년내 합병증 망막이상 44% 가장 많아

당뇨병환자 2명 중 1명은 진단 후 5년 이내에 첫 번째 합병증을 경험하며, 특히 눈의 망막이상이 가장 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바이엘헬스케어 당뇨사업부는 '당뇨병환자 꿈 실현 프로젝트(바이엘 드림펀드)'의 일환으로 당뇨병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당뇨병성 합병증 환자 중 46.9%가 당뇨 진단 후 5년 이내에 합병증을 얻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발병 후 1년이 안된 시점에 합병증이 생겼다고 응답한 환자도 10.8%나 됐다. 10년 이상 지난 다음 합병증을 얻은 경우는 30.1%, 5~10년 사이는 22.9%로 각각 조사됐다. 이들이 얻은 첫 합병증으로는 눈의 망막 이상이 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계 이상(17.7%), 고혈압(16.7%), 심장병(6.3%), 관절이상(5.2%), 성기능장애(4.2%) 순을 보였다.

한편 당뇨관리를 위해 자가혈당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7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94.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중·장년층 당뇨병 환자들의 자가혈당측정기 사용 비율은 70%대에 그쳤다.

글 홍지영 기자

3 개월 꾸준히 운동하면 당뇨 좋아진다

역기들기 등의 저항력 훈련(resistance training)과 유산소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한 가지 운동 종류만을 하는 것보다 장기적 혈당조절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연구팀에 의해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 어떤 운동이냐 하는 운동의 종류가 혈당조절에 미치는 차이는 크지 않고 모든 운동이 혈당조절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클랜드 대학 홉킨스 박사팀의 연구결과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약물 및 식습관 개선에 얻어지는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홉킨스 박사는 운동이 제 2형 당뇨병 치료의 주 치료라고 말하며 신체적 비활동성이 당뇨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어떤 종류의 운동이 혈당조절에 더욱 도움이 되는지를 알기위해 1,00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27개의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장기간의 혈당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에 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모든 종류의 지속적인 운동이 혈당조절에 도움이 되었지만 유산소운동과 역기들기 등을 같이 하는 것이 한 가지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과하게 단기간 운동을 하다 그만 하는 것보단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증상이 심할수록 운동이 더욱 강력한 혈당조절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운동과 식이요법, 약물요법을 결합하면 당뇨병환자의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글 홍지영 기자

당뇨 있는 말기 신부전환자, 암보다 생존율 낮아

말기 신부전 환자가 당뇨병까지 앓고 있다면, 그 생존율이 암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신장학회(www.ksn.or.kr)가 전국 280개 의료기관에서 신 대체요법(혈액투석·복막투석·신장이식)으로 치료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 환자를 분석한 결과, 말기 신부전 환자수가 1986년 2,534명에서 2005년12월말 현재 4만4,333명으로 집계돼 20년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신부전의 원인이 되는 신장질환은 ▲당뇨병성 신증이 38.5% ▲고혈압성 사구체 경화증 16.9% ▲만성 사구체 신염 14.5%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말기 신부전 환자의 5년 생존율이 39.9%로 집계돼 비당뇨병 환자의 5년 생존율(65.1%)보다 크게 낮았을 뿐만 아니라, 암환자(45.9%)의 경우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신장학회 관계자는 "당뇨와 고혈압 등의 만성신장질환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을 때부터 정기적인 신장검사를 통해 신장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암환자의 생존율보다 낮은 말기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 경감조치 등 국가적 차원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 홍지영 기자

아시아 '당뇨 대란' 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당뇨병환자 급증으로 '당뇨 대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국가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당뇨병환자 증가율뿐 아니라 젊은 층의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윤건호·손호영 교수팀은 '아시아에서의 비만과 제 2형 당뇨병의 역학'이라는 논문을 통해 아시아 국가의 당뇨병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세계적 의학 권위지 '랜싯' 11일자 종설로 실렸다.

이 논문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은 서양에서 발생하는 것과 그 양상이 다르다. 우선 단기간에 유병률이 급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서 제 2형 당뇨병의 유병률은 지난 30년 동안 약 1.5배 늘어난 데 비해 아시아 국가에서는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는 한국 30년 동안 5.1배, 인도네시아 15년 동안 3.8배, 중국 15년 동안 3.4배, 태국 30년 동안 3.8배, 인도 30년 동안 4배, 싱가포르 7년 동안 2.1배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아시아 당뇨병환자의 또 다른 특징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유병률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의 당뇨 유병률은 30대보다 40대에 갑자기 증가하지만,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30대 유병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관찰됐다. 실제로 미국은 전체 30대 인구의 2% 정도가 당뇨를 앓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30대 인구의 6%가 당뇨병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아시아인이 서양인보다 체형적으로 더 날씬한데도 비슷한 당뇨 유병률을 보이며, '당뇨병성 합병증' 비중도 크다고 밝혔다.

미국 당뇨병환자는 80~90%가 비만인 데 비해 한국의 당뇨병환자 중 비만자의 비율은 30%에 그친다고 논문에서 밝혔다. 미국인 중 과체중(체질량지수인 BMI 25~30)과 비만(BMI 3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각각 34%, 30%에 달하고, 한국인 중 과체중과 비만자 비율은 각각 27.4, 3.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한국인의 당뇨병환자 비율은 7.6%로 미국(8.2%)과 비슷한 상태다.

이는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체중이 정상인(BMI가 낮은)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교수는 "한국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날씬한' 당뇨병환자가 많은 것은 인종적·유전적으로 서양인과 다른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상 체형의 소유자에게 제 2형 당뇨병이 생기는 이유로 현재 두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베타세포(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 수가 서양인에 비해 적은 점이다. 살이 많이 쪘거나 운동량이 적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베타세포가 부족해 당뇨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제 2형 당뇨병환자 중 상당수가 1형(소아형,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환자처럼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허갑범 박사는 날씬한 당뇨병환자에게 '1.5형 당뇨병'이란 새 병명을 붙이기도 했다.

두 번째 원인으로 한국인의 근육량이 미국인보다 10~15% 적은 점이 꼽힌다. 근육량이 적으면 먹은 것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혈당을 올리거나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한국인이 당뇨병에 걸릴 유전적 소인이 서양인보다 많은 데다 과식, 고지방 식사,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 홍지영 기자

약효 2배 빠른 당뇨약 출시 · · 중외제약 '글루패스트

중외제약이 기존 치료제보다 약효가 2배가량 빠른 당뇨병 치료제를 내놓았다.

중외제약은 기존 제품에 비해 혈당을 보다 신속하게 떨어뜨려 주는 당뇨병 치료제 '글루패스트'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글루패스트는 복용 후 30분 이내에 혈당 강하 효과가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 복용 후 1시간 안에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제품은 있었지만 30분 이내에 고혈당을 조절시켜주는 치료제는 글루패스트가 처음이다.

따라서 당뇨병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식후 고혈당은 당뇨병의 합병증인 심혈관질환을 유발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글루패스트는 당뇨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환자들이 복용하기에도 더 편해진다. 기존 치료제는 효과가 1시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식사 20~30분 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글루패스트는 효과가 30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식사와 동시에 약을 복용하면 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중외제약은 2003년 일본 키세이사로부터 글루코스트 국내 독점개발 및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국내 임상을 비롯한 제품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중외제약 관계자는 "국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연간 2300억원 규모에 이른다"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앞으로 이 제품을 200억원 이상 판매하는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홍지영 기자

24 시간 당뇨조절 인공췌장 개발

컴퓨터를 사용해 환자에게 필요한 인슐린을 정확하게 투여해 혈당을 24시간 조절해 주는 인공췌장이 개발됐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이 인공췌장은 혈당 감지 센서와 인슐린 펌프를 휴대용 컴퓨터와 무선으로 연결시켜 정확하게 인슐린을 투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측은 제 1형 당뇨병환자의 경우 하루 24시간 75%까지 정상혈당을 유지할 수 있어 실명과 족부궤양 등 심각한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글 홍지영 기자

제 2형 당뇨병환자, '빈혈' 흔히 발생

제 2형 당뇨병환자에서 헤모글로빈 감소로 인한 빈혈이 서서히 나타나며 특히 만성신장질환이나 대혈관이 손상된 노인환자에서 이와 같은 증상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멜버른의 베커의학연수소 토마스 박사는 이와 같이 고위험군의 사람들에 대해 1년 혹은 2년 간격으로 선별검사를 함으로써 빈혈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빈혈은 지금 당뇨병환자에서 새로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당뇨병 신장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있어서 조기에 빈혈이 발병하고 더욱 심한 증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제 2형 당뇨병을 가진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년간의 연구결과 12%가 연구 시작 당시 빈혈증상을 보였고 13%에서 추적 기간동안 빈혈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는 평균적으로 해마다 데시리터당 약 0.07 정도 떨어졌다. 토마스 박사는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 빈혈이 미세혈관손상의 시작과 함께 진행 1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온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 감소 비율은 연구시작 당시 진행성 신장손상과 대혈관 손상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마스 박사는 당뇨병이 있는 개인에서 빈혈의 예방과 조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 홍지영 기자

유나이티드, 당뇨 합병증 예방 복합제제 특허 취득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6일 당뇨병 합병증 예방 복합제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당뇨병 치료제와 고지혈증 치료제, 아스피린을 한 알에 담은 것으로 당뇨병환자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을 치료,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당뇨병환자의 합병증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약물을 별도 처방, 복용해야 했다. 정확한 복용 시간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방법도 복잡해 환자의 불편이 심했던 것.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동맥경화증 예방에 널리 사용되는 설포닐우레아계 혈당강하제와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 아스피린을 하나의 제형에 복합적으로 처방했다"며 "여러 약물을 단일제형화 함으로써 복용이 간편하고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바스타틴이나 아토바스타틴 칼슘 같은 HMG-CoA 환원효소 저해제는 고지혈증 치료제 중 가장 효과적인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아스피린은 매일 100mg의 저용량을 복용하면 동맥 혈전증의 예방약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로 주목받고 있는 약물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번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연간 2300억원에 달하는 당뇨병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해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글 홍지영 기자

뇌졸중 · 당뇨 e메일로 관리

뇌졸중과 고혈압, 당뇨 등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 환자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1개 광역시를 선정, 내년 7월부터 3년 동안 심·뇌혈관 질환자들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의 29억원보다 134.1%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광역시로는 대구광역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따르면 심·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보건소·국립대학병원·민간병원 등에 등록하면 문자메시지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해 검사·치료일정과 교육내용, 건강정보 등을 통보받게 된다. 증세가 심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가정방문 간호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범사업 광역시의 8개 보건소에 전담간호사 4명씩 모두 3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등록하면 연간 7만 2000원의 약값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성 기획처 복지재정과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활·식습관의 변화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 질환은 일단 걸리면 본인뿐 아니라 국가적 손실(부담)이 엄청나 선진국에서는 예방 차원의 국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 과장은 "심·뇌혈관 환자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놓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면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 홍지영 기자

당뇨병환자 발 관리 '5계명'

최근 미국 발 및 발목 수술의사 협회에서 당뇨병환자의 발 관리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당뇨병환자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발의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사람에 비해 하지 절단 위험성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발 궤양 감염증, 발 기형 발병 쉽고, 뼈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미국 발 및 발목 수술의사 협회가 발표한 당뇨병환자의 발 관리 권고안은

①발 궤양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발 부상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 ②미지근한 물로 발을 씻을 것. ③발의 보습 상태를 유지하되 발가락 사이는 건조하게 유지할 것. ④발에 생긴 각질 또는 티눈을 제거하지 말 것.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 ⑤신발의 안창을 잘 살필 것 등이다.

당뇨병환자의 발 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 치료를 받아야 당뇨발의 증상 악화를 피할 수 있어 하지 절단 위험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글 홍지영 기자